

# Issue Paper

2003. 10. 24.

## 농촌활성화를 위한 농촌어메니티 정책의 방향

### 목차

I. 농업 농촌정책의 현황과 시사점

II. 농촌어메니티의 개념

III. 농촌어메니티의 실천사례

IV. 농촌어메니티 정책의 방향

내용문의: 전영옥 수석연구원  
(jeonyo@seri.org)  
02-3780-8133

## 《요약》

### 치열한 경쟁체제 속에서 취약한 국내 농업·농촌의 경쟁력

- 지난 40여년 간 비농업부문이 연평균 8.9% 성장해 온 데 비해, 농업은 연평균 2.3%의 저성장시대가 지속
  - 60년대 이후 농업비중과 식량자급도가 지속적으로 하락하고 있으며, 농산물 수입급증 및 가격지지를 통한 농업보호로 대외경쟁력 취약
  - 농가소득의 정체, 농가부채의 급증 등이 농가경제를 위협하고 있으며, 직접지불에 의한 지원이 미미하여 소득보전효과 미흡
  - 열악한 생활·복지기반으로 농촌정주 기피현상이 심화되고 농촌사회의 활력이 저하
- WTO 농산물 무역자유화 협상 진전에 따라 농업부문의 경쟁체제 진입이 가속화되고 농산물 시장 개방 폭이 확대
  - 농산물 수급·가격의 불안정성 확대로 경영위험이 증가하고 농가소득 불안정성 증대
- OECD 주요 회원국을 중심으로 농촌지역에 광범위하게 존재하는 자연환경, 경작지경관, 역사적 기념물 등에 대해 새로운 관심을 가지기 시작
  - 주5일 근무제가 정착되면 관광·휴양공간으로 뿐만 아니라 새로운 소득원으로써 농촌의 새로운 가치에 대한 중요성이 점차 부각
  - 농촌의 지역성을 바탕으로 한 농촌어메니티 자원을 농업·농촌 발전의 새로운 성장동력으로 활용하여 농업의 활로를 모색

## 사회적 · 경제적 가치를 제공하는 원천으로써 농촌어메니티

- 농촌어메니티는 단순히 쾌적한 환경이라는 의미보다는 농촌지역 사회구성원들에게 사회적 · 경제적 가치를 제공하는 자원으로 봄
  - 농촌어메니티는 청정한 자연환경, 도시민들이 생각하는 원풍경(原風景)으로써 농촌경관, 특산물, 경작지 경관, 역사적 기념물, 문화적 전통을 포함한 농촌지역의 유 · 무형의 자원을 의미함
  - 농촌어메니티는 도시에서와 같이 공간의 질을 높이는 개념이라기보다는 재화으로써 자원 중심적인 개념임
  - 농촌어메니티는 자원을 의미함으로써 농촌정책이나 개발을 위한 기초단위가 될 수 있음
- 농촌어메니티와 도시어메니티의 가장 큰 차이점은 전자는 후자와는 달리 경제성 추구가 가장 큰 전략이 된다는 점임
  - 도시와 차별되는 농촌만이 가지고 있는 어메니티 자원을 적극적으로 활용함으로써 경제적 효과를 기대
  - 농촌어메니티 자원의 발굴 및 관리를 통하여 경제적 효과를 거두게 되면 이를 바탕으로 농촌환경 개선 및 농촌복지의 실현이 가능해짐

## 농촌어메니티 실천사례의 시사점

- 주요 선진국의 경우를 보면, 국가차원의 정책적 지원과 함께 농촌어메니티 자원관리의 기술적 수단을 가지고 있음
  - 국가 차원의 정책적 지원을 바탕으로 지역별로 브랜드 개발, 경관상품, 관광자원화 등 다양한 상품화 전략을 추구함
- 국내의 경우에는 개발사업에서 도외시 되어오던 일부 지방자치단체를 중심으로 역발상을 통한 농촌어메니티 자원의 활용이 시작됨

- 낙후된 농촌지역을 어메니티 차원에서 재평가할 때, 청정한 이미지의 자원이 풍부한 곳으로 탈바꿈 함
- 문화와 축제로 시작한 농촌어메니티 자원의 활용은 실험적인 단계이기는 하지만 상품화를 시도

## 농촌어메니티 정책의 방향

### □ 농촌어메니티 정책으로 기존정책의 시급한 전환이 필요

- OECD 회원국과 국내 지방자치단체의 농촌개발의 새로운 변화 움직임에 중앙정책 대응 미흡
- 지방자치단체들의 인식의 전환과 자생적인 정책의 변화에 대해 농촌어메니티 개념으로 재해석하고 국가차원의 정책적 지원이 시급함
  - 자생적인 지역경제회생정책의 일환으로 이미 많은 지방자치단체가 지역의 고유성을 살린 경쟁력 있는 사업시도
- 농업소득 증진과 농촌공간정비로 분리하여 지원하던 것을 농촌어메니티라는 하나의 개념으로 통합

### □ 토목사업 위주의 하드웨어 개발에서 탈피

- 농촌어메니티 자원의 보전과 활용을 위해서는 무분별한 토목사업위주의 개발은 지양되어야 함
- 농촌어메니티 정책에서는 기존의 남아 있는 농촌어메니티 자원의 보전과 이를 경제재원화하는 소프트웨어 개발이 주요 전략임
  - 농촌지역의 편리성을 개선해 나가는 지원사업은 지속할 필요가 있으나, 농촌어메니티 개념을 도입하여 지역적 특성을 살릴 수 있도록 함

□ 농촌자원에 대한 재평가와 정책지표의 개선

- 기존 정책의 관점에서 볼 때에는 일부 농촌지역은 도·농 격차가 큰 지역으로 평가되어 차별성 없는 정책수립과 집행이 이루어짐
- 농촌어메니티 정책의 관점에서 낙후지역을 보면 개발에서 소외되었기 때문에 자원이 풍부한 잠재력이 있는 지역으로 재평가될 수 있음
  - 농촌지역과 낙후지역에 대한 재평가는 경제성 추구에 대한 기존의 개발 방식에 대한 인식의 전환을 의미함
- 농촌어메니티 정책의 지표는 도시지역에 비해 경쟁력이 있는 요소를 보여주는 긍정적 지표로 개발할 필요가 있음

□ 새로운 시장창출을 위한 정책지원수단의 다변화

- 농촌어메니티 정책 시행 초기단계에서는 새로운 시장을 조성하기 위하여 중앙정부가 콘텐츠 신디케이트(Contents Syndicate) 역할을 수행할 필요성이 있음
  - 각 지역의 농촌어메니티 생산자와 밀착된 콘텐츠를 수집하고, 더 많은 수요자에게 보급하는 효과를 극대화시킬 수 있도록 중개자로서 콘텐츠 신디케이트 모델 적용
- 각 지역에 산재한 농촌어메니티 자원활용의 극대화를 위한 디지털 콘텐츠 제작의 적극적 지원
- 농촌어메니티 자원경영을 실현하고자 하는 농가 및 사업체의 발굴과 수익모델에 대한 가이드라인 보급
- 지역특성에 맞는 농촌어메니티 또는 경관보전형 직접지불제에 대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자율적 기준도입 가능성 검토
- 농촌환경개선사업과 연계하여 농촌어메니티 특화사업 지원

## I. 농업·농촌정책의 현황과 시사점

### 1. 한국 농업·농촌정책의 현주소

#### □ 구조적 취약성과 향상되지 않는 농업경쟁력

- 60년대 이후 농업비중과 식량자급도가 지속적으로 하락
  - GDP대비 농림어업비중: 38.7%('61) → 8.5%('90) → 4.5%('01)
  - 식량자급도: 93.9%('65) → 43.1%('90) → 29.7%('01)
- 농업경영규모가 영세하여 '규모의 경제'가 작동되지 않음
  - 호당 경지면적: ('91) 1.23ha → ('98) 1.35ha → ('01) 1.39ha
- 지난 40여년 간 비농업부문이 연평균 8.9% 성장해 온 데 비해 농업은 연평균 2.3%의 저성장 시대가 지속
  - 94~2001년 간 농업부문 평균성장률: 2.7%(일반경제성장률: 5.7%)
  - 94~2001년 간 농업소득(명목기준)은 연평균 1.3% 증가에 그침
- 농산물 수입급증 및 가격지지를 통한 농업보호로 대외경쟁력 취약
  - 농산물 수입액: 1998년 64억달러에서 2001년 86억달러로 증가
  - 2001년 주요 품목별 국내외실질가격차: 쌀 5.1, 콩 8.2, 우유 2.9, 쇠고기 3.2, 돼지고기 1.2, 고추 3.3

#### □ 농가소득의 불안정과 소득보전 미흡

- 농가소득의 정체, 농가부채의 급증 등 농가경제 위협
  - 94년 농가소득은 도시가구의 99.5% 수준이었으나 2001년에는 75.9%로 도·농간 소득격차가 확대
- 직접지불에 의한 지원이 미미하여 소득보전효과 미흡
  - 농업예산에서 차지하는 직불금 비중 7%(미국 32%, 일본 13%)

가구당 농가소득과 농가 부채 추이

(단위 : 만원)

| 구분         | 91년   | 95년   | 98년   | 2001년 |
|------------|-------|-------|-------|-------|
| 농가소득       | 1,311 | 2,180 | 2,049 | 2,391 |
| 농가부채       | 519   | 916   | 1,702 | 2,038 |
| 농가부채비율 (%) | 39.6  | 42.0  | 83.1  | 85.2  |

주 1) 전체 농가부채 27조 7,500억원

주 2) 농가부채비율 : 농가소득에서 차지하는 농가부채의 비율

주 3) 일본의 경우에는 농가소득이 도시근로자 소득보다 20 ~ 30% 높은 상황

☐ 열악한 생활, 복지기반으로 농촌 정주 기피현상이 심화되고 농촌사회의 활력이 저하

- 대도시 인구 집중으로 인한 농촌의 공동화 현상 심화

- 농촌인구 감소: 90년 7,498천명에서 2000년 5,601천명으로 25.3% 감소
- 65세 이상 고령농민의 비율: 94년 16%에서 2002년 26%로 증가

- 주거, 상하수도, 도로 등 기초 인프라, 교육·의료·정보화 등 생활환경 및 복지수준이 전반적으로 취약

☐ 1980년대 이후 지역적 차별성이 부족한 생활환경정비 사업이 추진됨

- 중앙정부 주도의 물량위주 개발방식으로 농촌생활공간의 특성과 경관을 고려하지 못한 계획이 되고 있음

## 2. 국내외 환경 변화

☐ 비교우위에 의한 경쟁체제로의 진입이 더욱 가속화 됨

- WTO 농산물 무역자유화 협상 진전에 따라 농업부문의 경쟁체제 진입이 가속화되고 농산물시장 개방 폭이 확대

- 경쟁에 입각한 국제분업 및 전문화체제 대두
- 국내 정책 및 제도의 국제적 조화와 수렴을 통한 공정한 교역과 평등한 경쟁기회의 부여에 대한 압력이 증대

□ 중국의 WTO 가입과 2004년 쌀 관세화 유예 재협상

- WTO 가입 이후 중국은 적극적인 개방정책을 수용
- 중국은 WTO 농산물협상에서 관심품목에 대한 시장개방을 강하게 요구
- 쌀 관세화유예 연장 문제는 최종 결론과 무관하게 시장개방 폭의 확대에 귀결될 전망
- 2004년에 있을 쌀 관세화유예 재협상은 2004년 농업문제의 핵심쟁점으로 부상할 전망

□ 국내 농산물 시장의 경쟁 심화와 농산물 소비구조 변화

- 시장원리를 바탕으로 농업인들이 자율·창의적 경영을 통하여 경쟁하는 분위기 확산
- 농산물 수요가 다양화되고, 고급농산물을 중심으로 소비구조 변화

□ 농산물 수급·가격의 불안정성 확대로 경영위험이 증가하고 농가소득 불안정성 증대

- 농산물 시장개방으로 수입농산물에 의한 국내시장의 교란요인이 증대
- 농산물 가격의 전반적인 하락은 수익성이 있는 작목으로 생산집중을 유발하여 가격급락을 초래할 우려
- 수입농산물 급증→국내 농산물 공급과잉과 가져하락→농가수지 악화→농업부문 저성장

□ 정보·지식사회로의 이행은 농업·농촌에 새로운 발전기회를 제공

- 농업에 첨단과학기술과 지식·정보가 광범위하게 응용되면서 고부가가치 산업으로 변모할 가능성이 대두
  - 생명공학(BT), 식품, 농자재 등의 분야에서 새로운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추세
- OECD 주요 회원국을 중심으로 농촌지역에 광범위하게 존재하는 자연환경, 경작지경관, 역사적 기념물 등에 대해 새로운 관심을 가지기 시작
- 주5일 근무제가 정착되면 관광·휴양공간으로 뿐만 아니라 새로운 소득원으로써 농촌의 새로운 가치에 대한 중요성이 점차 부각

### 3. 시사점

- 향후 10년 간의 세계 농업구조는 지난 반세기에 걸쳐 변화해 온 것보다 훨씬 큰 변화가 예상
  - DDA 협상, FTA 확산으로 시장개방폭이 확대되고 있음
  - 「시장의 가치」가 중요해지면서 정부의 역할이 축소되고 농업부문에서의 경쟁이 심화
- 공급과잉 시대의 도래로 경쟁력 있는 농업·농업인만이 생존
  - 환경변화를 미리 읽고 대비를 하는, 경쟁력 있는 농업으로의 전환이 시급
  - 공급과잉, 상품의 다양화에 따라 소비자의 선택 폭 확대
- 토지와 인력에 의존하던 농업이 기술과 자본이 결합된 종합산업(life·science·business)으로 탈바꿈
  - 첨단기술의 개발과 이용 및 경영·정보 등 지식이 농업의 경쟁력을 좌우
  - 상상력, 비즈니스 감각, 시장원리 없이는 농업도 생존이 불가능

### 3대 농업혁명

| 구분  | 1차농업혁명                      | 2차농업혁명                      | 3차농업혁명                            |
|-----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
| 시기  | 1800년 전후                    | 1950년 전후                    | 21세기 본격화                          |
| 내용  | 삼포식농업에서<br>윤작법으로 전환         | 다수확품종의 개발<br>(멘델법칙의 이용)     | 생명공학, 전자공학,<br>디지털 정보관련<br>기술의 발달 |
| 주도국 | 영국<br>- 당시 유럽최대의<br>농산물 수출국 | 미국<br>- 20세기 최대의<br>농산물 수출국 | ?<br>- 농업의 새로운 변혁                 |
| 특이점 | 생산량의 비약적 증가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새로운 부가가치 창출                       |

- 농촌의 지역성을 바탕으로 한 농촌어메니티 자원을 농업·농촌 발전의 새로운 성장동력으로 활용하여 농업의 활로를 모색
- 생산위주의 농업정책에서 서비스가 부가된 농업정책으로 전환
  - 농촌이 가지고 있는 자연환경, 역사문화환경, 경관 등이 새로운 시장창출의 자원으로 대두
  - 농촌의 환경과 전통문화 등 다양한 농촌 고유의 자원을 통해 소비자의 수요를 창출하여 새로운 소득기회로 활용
  - 지역특성을 감안한 다양한 소득원 개발로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
  - 농촌다움과 쾌적함에 서비스가 더해질 때 다양한 시장이 창출

## II. 농촌어메니티의 개념

### 1. 농촌어메니티란

- ☐ 일반적으로 어메니티(Amenity)는 사람이 어떤 사물이나 환경에 대해 긍정적으로 느끼는 감흥으로서의 쾌적성을 의미
  - 어메니티 자체에 대한 이용자들의 소비욕구에 따라 지불용의성이나 기회비용을 지녀 경제적 가치를 지닌 것으로 파악될 수 있음
- ☐ OECD에서는 농촌어메니티를 단순히 쾌적한 환경이라는 의미보다 농촌지역 사회구성원들에게 사회적·경제적 가치를 제공하는 자원으로 봄
  - 농촌어메니티는 야생지, 경작지 경관, 역사적 기념물, 문화적 전통을 포함한 농촌지역의 유·무형의 자원을 의미함
  - 일본에서는 농촌지역 특유의 풍부한 자연이나 역사, 풍토 등을 통해 얻어지는 여유와 윤택함과 편안함으로 가득 찬 거주 쾌적성으로 정의
- ☐ 농촌어메니티는 농촌정책이 추구해야 할 목표 개념으로써 새로운 대안이 될 가능성이 있음
  - 농촌어메니티는 자원을 의미함으로써 농촌정책이나 개발을 위한 기초단위가 될 수 있음
  - 농촌어메니티는 도시에서와 같이 공간의 질을 높이는 개념이라기보다는 재화로서 자원 중심적인 개념임
  - 농촌주민과 도시민의 공동자산으로써 이들 양자의 가치를 고려할 필요가 있음
    - 농촌주민들에게는 일상적 생활환경이면서 경제적 가치를 지닌 자원으로

써, 도시민에게는 관광이나 상품구매와 같은 소비욕구의 대상이 됨

- 현재 추진 중인 각종 정책을 농촌어메니티 추구라는 목표로 전환할 필요가 있음
- 농촌어메니티 추구를 통해 경제적·사회적 가치 실현

## 2. 도시어메니티와의 차이점

- 18세기 영국 산업혁명 이후 악화된 공중위생 및 도시환경의 질 개선을 위하여 어메니티 개념 확산
  - 도시어메니티란 도시환경의 악화에 대한 반성에서 출발하여 성립된 개념으로써 생활환경의 종합적 쾌적성을 의미
  - 따라서 최종 목표는 도시공간의 질적 향상을 통한 삶의 질 추구이며, 그 수혜자는 도시민에게 국한됨
  - 전략적으로 편리성, 환경성, 심미성, 문화성을 추구하는 방향으로 실천하여 포괄적인 공간의 질을 상승시킬 수 있음
- 농촌어메니티는 농촌정책의 새로운 목표로써 기존 농촌정책에 대한 반성에서 출발함
  - 최종적인 목표는 농촌어메니티 자원 개발을 통해 농촌의 새로운 시장을 창출하는 것임
  - 도시와 차별되는 농촌만이 가지고 있는 어메니티 자원을 적극적으로 활용함으로써 경제적 효과를 기대
  - 농촌만이 가지고 있는 어메니티 자원으로써 청정한 자연환경, 도시민들이 생각하는 원풍경(原風景)으로써 농촌경관, 특산물 등이 해당됨
  - 농촌어메니티 자원의 발굴 및 관리를 통하여 경제적 효과를 거두게 되면 이를 바탕으로 농촌환경 개선 및 농촌복지의 실현이 가능해짐

- 농촌어메니티의 수혜자는 경제적 혜택을 누리는 농촌주민 뿐 만 아니라 수요욕구를 충족시킬 수 있는 도시민들도 해당됨
- 따라서 농촌어메니티와 도시어메니티의 가장 큰 차이점은 전자는 후자와는 달리 경제성 추구가 가장 큰 전략이 된다는 점임

#### 도시어메니티와 농촌어메니티의 차이점

| 구분            | 도시어메니티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농촌어메니티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
|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
| 목표            | 포괄적인 공간의 질 상승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농촌의 새로운 시장의 창출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
| 정책대상          | 도시공간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개별자원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
| 수혜자           | 도시민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농촌주민 및 도시민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
| 어메니티 정책추구의 전략 |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- 편리성 개선</li> <li>- 환경성 회복</li> <li>- 심미성 추구</li> <li>- 문화성 확립</li> </ul> |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- 경제성 추구</li> <li>- 편리성 개선</li> <li>- 환경성 회복</li> <li>- 심미성 추구</li> <li>- 문화성 확립</li> </ul> |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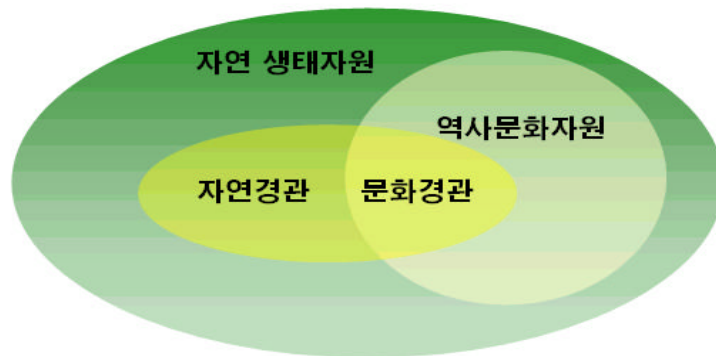
### 3. 농촌어메니티 자원

- 농촌어메니티 자원이란 농촌주민의 삶의 질과 쾌적성 및 경제성을 추구할 수 있는 유·무형의 자원을 의미
  - 농촌지역의 자연 및 사회·문화 전반에 바탕을 두고 도시지역과 차별성을 가질 수 있는 자원이어야 함
  - 농촌어메니티 자원은 농촌주민과 도시민의 공동의 자산으로 볼 수 있음
    - 악화된 도시공간에 대한 반작용으로서 농촌어메니티 자원의 중요성이 증대되고 있음
    - 농촌주민에게는 농촌어메니티 자원이 중요한 경제재원으로 등장

□ 농촌어메니티 자원은 몇 가지 유형으로 분류 할 수 있음

- 자원의 종류에 따라 자연생태자원과 경관자원, 역사문화자원으로 나누어 볼 수 있음
  - 자연생태자원으로는 대기질, 수질, 소음이 없는 환경, 비오톱, 토양 동식물 등이 해당됨
  - 경관자원으로는 산림경관, 하천경관, 농업경관, 주거지경관 등이 해당됨
  - 역사문화자원으로는 전통건조물, 전통마을구조, 풍수지리나 전설, 생활공동체활동, 농업공동체활동, 마을놀이 등이 해당됨
- 경관자원과 역사문화자원은 자연생태자원을 바탕으로 서로 연결되어 있음

농촌어메니티자원의 상호 연결성



- 자원의 관리방향에 따라 기초핵심자원, 생활자원형, 관광자원형으로도 분류할 수 있음
  - 자연생태자원 중에서는 대기질, 수질, 소음이 없는 환경, 식생 등이 기초핵심자원이 될 수 있음
  - 경관자원 중 산림, 하천, 농업경관은 기초핵심자원으로서 농촌이 지닌 고유한 경관적 특성을 유지하면서 자원화 하는 방안이 필요함
  - 역사문화자원은 주로 관광자원화를 위한 유형으로 분류됨

### OECD의 농촌어메니티 자원 분류

- OECD에서는 농촌어메니티 자원을 인간의 관여정도에 따라 3가지 유형으로 분류함
- 인간의 간섭이 적은 원생에 가까운 자연적 자원으로써 원시림, 황무지, 고산 산악 등이 있음
- 인간과 자연의 상호작용에 의해 생성된 자원으로는 농업경관, 마을 숲 등이 해당됨
- 인간이 만들어 낸 인공적 자원으로는 역사유적 및 전통적 생산물, 마을축제 등이 해당됨

☐ 농촌어메니티 자원의 개발 방향은 형성된 배경에 맞추어 최적상태로 유지해 나가면서 경제적 효과를 얻을 수 있어야 함

- 도시지역과 차별성을 가질 수 있는 자원의 발굴이 중요함
- 자원의 특성에 따라 적절한 수준의 어메니티의 질을 유지할 수 있는 관리기술을 개발해야함
- 농촌어메니티 자원의 일부는 직접 시장가치재로 전환하여 경제자본을 확충하는 방향을 모색할 필요성이 있음

## Ⅲ. 농촌어메니티의 실천사례

### 1. 해외 트렌드 분석

#### Trend 1 국가차원의 정책적 지원

☐ 영국의 경우, 농촌경관의 보전과 효율적인 경작을 동시에 달성할 수 있는 정부 시책 시행

- 정부는 농부와 토지소유자의 자발적인 협력을 바탕으로 지역의 경관 및 역사적 가치의 보전을 증진시키는 시책 추진
  - 기준에 적합한 지역에 대해 농부들이 토지를 이용할 때 친환경적인 경작 방식의 유지 등에 관해 계약함
    - 구체적으로 ESA(Environmentally Sensitive Areas)제도와 CSS(Countryside Stewardship Scheme)제도가 있음
  - ESA의 지정대상지역은 농업용으로 사용되는 지역으로써 환경적 중요성을 지니고 특수한 경작방식을 적용·관리·확장 할 수 있는 지역이 해당
    - 농부나 농업토지관리자들은 중앙정부와 10년 간의 관리계약을 맺어 토지면적당 연간보상비용을 지불 받음
  - CSS제도는 ESA의 지정지역 외부에 있는 자연경관과 농촌의 다양성을 증진시켜 일반대중의 접근성을 높이는 것이 목적
- ☐ 일본은 1980년경부터 농촌어메니티에 대해 관심을 가지기 시작하여 주민 참여를 이끌어낼 수 있는 진흥정책 시행
- 1986년부터 국토청과 (재)농촌개발기획위원회에서 “농촌쾌적성대회”를 개최함
    - 어메니티 향상에 힘쓰고 있는 마을 만들기 활동에 대해 표창하는 사업
  - 농촌쾌적성대회의 심사기준은 주민참여 정도, 자연환경의 보전, 생활환경의 편리성, 전통문화의 계승, 경관의 보전, 도농교류임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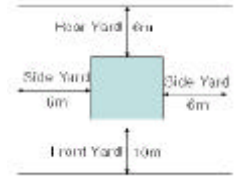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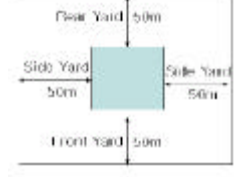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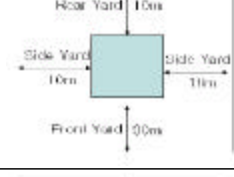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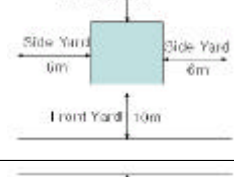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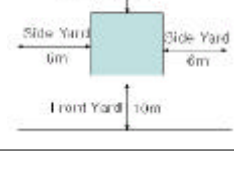
## Trend 2 농촌어메니티 자원관리의 기술적 수단 확보

- ☐ 뉴질랜드의 경우에는 농촌어메니티 자원의 성격에 따라 몇 개의 구역으로 나누어 관리지침을 세우고 있음
- 뉴질랜드의 많은 지역계획(District Plan)에서는 어메니티의 특성에 따라

용도지역(zone)을 나누는 경우가 많음

- "Rodney District Plan(2000)"에 의하면 농촌의 특성과 어메니티 가치를 가지고 있는 지역을 특별히 관리
    - “General Rural Zone(GRZ)”, “Landscape Protection Rural Zone(LPRZ)” 등으로 나누고 행위규제를 실시함
    - GRZ에서는 주거지 개발도 포괄적인 농장(Farm Park)의 형태이어야 하며 중요한 자연환경을 보호해야만 함
    - LPRZ에서는 해안의 경관을 보호해야 할 지역 2곳이 포함됨
  - "Rodney District Plan"의 용도지역 시행에 따른 예상되는 결과는 농촌지역의 특성과 어메니티 가치의 보전과 관리로 집약됨
- ☐ 독일의 경우, 비오톱(Biotop)을 중심으로 전국의 기초자료를 DB화하여 농촌지역의 생태서식공간에 대해서 체계적인 관리를 하고 있음
- 독일에서의 농촌지역은 식량과 원료의 생산 외에 휴식공간으로서의 역할, 자연경관 보호와 생태계의 균형 도모라는 기능 부여
  - 비오톱은 동질한 생물서식공간으로써 자연환경보전 및 환경계획의 관리단위로 이용되고 있음
  - 독일의 니더작센주의 비오톱 분류체계를 보면 농촌지역은 녹지 및 오픈스페이스 지역에 해당
    - 중분류로써 하천 및 습지와 경작지, 산림지로 나누어 지도화 함으로써 생태자원의 관리가 이루어짐

"Rodney District Plan"에 의한 개발제한과 허용기준의 예

| 용도지역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건축물 높이의 최고한도     | 조경공간의 최소한도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
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
| General Rural Zone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A: 9m<br>B: 제한없음 |    |
| Islands General Zone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7m               |    |
| Countryside Living Town Zone<br>/ Countryside Living Rural Zone | 9m               |    |
| Landscape Protection Rural Zone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A: 4m<br>B: 7m   |  |
| East Coast Rural Zone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A: 4m<br>B: 7m   |  |

A: 주거지역 및 부속건물, 숙박시설에 대한 최고한도높이

B: 그 밖의 건물 및 구조물

### Trend 3 농촌어메니티 자원의 다양한 상품화 전략

□ 일본은 전통적인 농업경관이며 일본인의 마음에 안정감을 주는 원풍경(原風景)으로써 계단식 논(棚田)을 보전하고 상품화함

- 산지가 많은 일본의 지형적 특성으로 인해 계단식 논이 많이 만들어졌으며, 1993년 조사 당시 전체 논 면적 중 11.4%를 차지함

- 계단식 논은 ‘농민들의 기념비’, ‘일본의 피라미드’라고 불릴 정도로 역사적 의미를 지님
  - 그러나 평지의 논에 비해 많은 노동력이 들어가고 생산성은 떨어져 황폐화되어 갔음
- 1990년대부터 계단식 논 의 문화적 가치와 경관적 가치를 활용할 수 있는 중앙정부의 사업시책과 주민들의 자발적 참여가 시작됨
  - 1998년 2000년에 걸쳐 보전기금사업(棚田地域水と土保全基金事業) 실시
  - 도시주민들의 참여와 상품화 방안 모색
- 후쿠오카현 우키하(浮羽)정에서는 계단식 논을 도시민에게 분양하는 사업 등을 통해 관광자원화 함
  - 계단식 논 경관보전을 바탕으로 계단식 논(棚田) 오너 모집
- 오카야마현 구메난(久米南)정은 계단식 논에서 유기저농약 재배에 의한 ‘계단식논 천연미(棚田天然米)’를 생산·판매

#### 일본의 계단식 논(棚田)의 보전과 상품화



우키하 정 의 농작업 체험 축제



구메난 정 의 계단식논 경관

자료: <http://www.town.ukiha.fukuoka.jp/> (우키하 정 홈페이지)

<http://www.town.kumenan.okayama.jp/> (구메난 정 홈페이지)

삼성경제연구소 15

## 2. 국내 트렌드 분석

### Trend 1 낙후지역에 대한 역발상

- 개발사업에서 도외시되어 오던 일부 농촌지역은 도시지역과 비교하여 지금까지 낙후지역으로 인식되어 왔음
- 개발압력의 영향권에서 벗어난 소외된 지역들은 아직까지 인구밀도와 도시화율이 낮음
- 이러한 지역들은 공장이 들어서지 않아 고용창출효과를 기대하기 어려운 곳으로써 농업 외에는 다른 소득원을 기대하기 어려웠음

### 청정한 이미지의 농촌어메니티 자원 활용의 가능성

2001년 기준

| 평가기준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전국평균    | 광주광역시 | 춘천시     | 함평군     | 평창군      |
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---------|-------|---------|---------|----------|
| 인구밀도<br>총인구/총면적(명/km <sup>2</sup> )             | 476     | 2,767 | 225.7   | 111.2   | 31.8     |
| 1인당 녹지면적<br>임야+공원+농지/총인구<br>(m <sup>2</sup> /명) | 1,866.9 | 254.1 | 3,820.2 | 7,653.1 | 29,480.3 |
| 도시화율<br>읍이상 인구비율(%)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88.1    | 100   | 88.3    | 23.7    | 21.4     |
| 자동차 등록대수<br>자동차등록대수/총면적<br>(대/km <sup>2</sup> ) | 89.3    | 723.9 | 69.2    | 24.5    | 9.9      |
| 광공업체수<br>광공업체수/총면적<br>(개소/km <sup>2</sup> )     | 1.1     | 3.2   | 0.1     | 0.7     | 0.1      |

주: 농지의 경우 전·답·과수원 포함

자료: 함평군, 광주광역시, 강원도 통계연보, 건설교통통계연보, 통계청

- 이러한 낙후된 농촌지역을 어메니티 차원에서 재평가할 때, 청정한 이미지의 자원이 풍부한 곳으로 탈바꿈함
  - 인구밀도, 1인당 녹지면적, 도시화율, 총면적대비 자동차등록대수, 총면적대비 광공업체수와 같은 지표를 통해 청정이미지의 기준을 세울 수 있음
  - 인구밀도가 낮다는 것은 복잡하지 않다는 것을 의미하며 쾌적성의 근간이 될 수 있음
  - 아직 미개발지가 많고 도시화율이 낮다는 것은 주민들이 향유할 수 있는 녹지의 면적이 넓어 자연과 공생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함
  - 자동차 등록대수나 광공업체수가 면적에 비해 적다는 것은 대기오염이나 소음이 적다는 것을 의미함
- 전라남도 함평군의 경우, 1인당 녹지면적이  $7,653.1\text{m}^2$ 로 인근의 광주광역시 약 30.1배에 달하여 낙후지역에서 청정한 이미지로의 변화 시도
  - 전체면적대비 자동차 등록대수와 광공업체수도 현저히 적어 낙후지역의 이미지를 가지고 있었으나, 이를 자연과의 공생으로 이미지 전환
- 평창군의 경우, 강원도 천혜의 자연환경을 바탕으로 1인당 녹지면적이  $29,480.3\text{m}^2$ 에 달하여 광주광역시의 116배, 춘천시의 7.7배에 이름
  - 면적  $1\text{km}^2$ 당 자동차 등록대수가 9.9대, 광공업체수 0.1개소로 전국평균에 훨씬 못 미치는 낙후지역임
  - 그러나 오대산 국립공원, 대관령을 비롯한 산지 중심의 지형으로 해발고도 700m 이상의 고원구릉 지대의 자연조건을 가진 청정지역임

차별화 된 지역의 비전 「어메니티 서천」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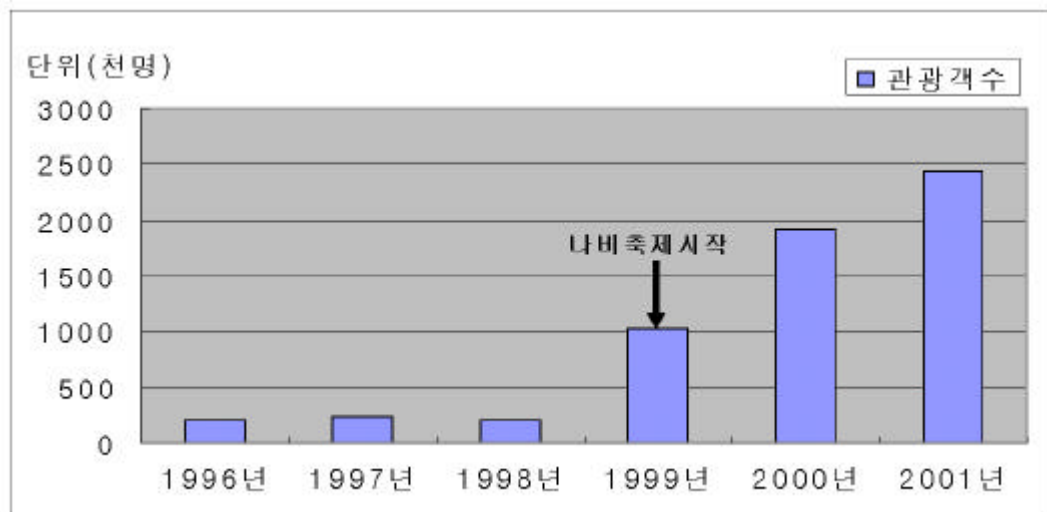
- 충청남도 서천군의 경우, 다른 지역에 비해 개발이 늦어져 지역발전이 정체된 것에 대한 역발상 시도
- 쾌적성으로 대표되는 어메니티 자원 측면에서 볼 때, 아직 대규모 관광지로 개발되지 않은 아름다운 해안과 갈대밭이 남아 있는 금강하구, 넓은 들을 가진 농촌경관은 경쟁력이 높은 자원임
- 경제적 활력을 가미한 어메니티 개념을 역동적인 지역회생정책으로 활용하기 위하여 「어메니티 서천」을 지역의 비전으로 삼음
- 어메니티는 서천군의 정책수립의 기본전략 및 지침으로 활용되어 어메니티를 향상하고 지역이미지 제고 및 지역경제활성화를 도모할 것으로 기대됨

Trend 2 문화로 시작되는 농촌어메니티 자원의 활용

- ☐ 함평군은 오염되지 않은 자연생태계 자체를 자원으로 생각하고 이를 바탕으로 다른 지역과 차별화 된 축제 아이템과 접목
  - 청정한 자연 속에서 볼 수 있는 나비를 테마로 하여 1999년 5월 1회 함평나비 축제 개최를 시작하여 2003년 5회에 이룸
    - 맑은 물, 깨끗한 공기 등 농촌의 자연환경의 특성을 살린 친환경 축제
  - 절개지나 버려진 하천 등에 자운영, 유채, 갯등전통꽃단지 수백만평을 조성하여 자연생태계 자원의 효과를 극대화 함
  - 나비사랑체험학습장, 생태체험학습행사, 나비생태관 등의 프로그램이 운영되는 행사장을 자연상태 그대로 활용한 것이 차별화 된 전략
    - 함평천 수변공원, 함평천 좌우의 친환경농업지구를 주요 무대로 나비축제 행사 개최
- ☐ 함평군은 농촌의 자연환경과 생활을 자원으로 활용한 관광명소가 되어 지역경제 활성화 도모

- 매년 20만 명 내외이던 관광객 수가 제 1회 나비축제가 시작된 1999년도에 100만 명을 넘는 등 직접적인 경제효과가 나타남
- 관광효과와 더불어 청정한 나비의 이미지를 함평군의 대표적인 이미지로 창출하여 간접적인 경제효과도 기대되고 있음
- 방송, 신문, 잡지 등 여러 매체를 통한 나비로 집약되는 일관성 있는 홍보자료 제공으로 함평군의 이미지 개선

함평군 관광객수 동향



자료: 함평군 통계연보(2002)

- 평창군의 경우에는 문화자원과 농촌경관자원을 바탕으로 한 축제를 시작
- 이효석의 소설 ‘메밀꽃 필 무렵’의 배경이 되고 있는 봉평면의 농촌경관을 중심으로 1999년부터 9월에 효석문화제 개최
- 인공적으로 메밀밭을 조성하도록 유도하여 문학작품에서 기인된 메밀꽃으로 뒤덮인 농촌경관을 조성하고 이를 축제의 무대로 삼음
- 이효석 생가터가 있는 효석문화마을을 중심으로 소설 속에 나오는 테마들을 재현함으로써 축제의 소재로 함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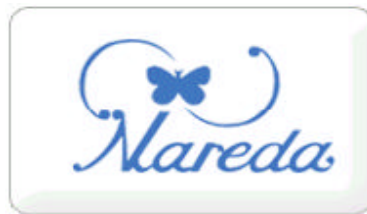
- 1997년부터 행사장 주변 농가를 중심으로 메밀밭 조성에 대해 군차원의 지원을 시작함
  - 2002년 기준으로 전체 면적 21ha(참여농가수 30농가)에 대해 적기 파종 및 개화를 조건으로 평당 1,500원 지원
- 평창군은 효석문화제와 함께 천혜의 자연환경과 기후조건을 이용한 대관령 눈꽃 축제를 매년 열고 있음
- 10ha이상의 초지보유 축산농가만도 55농가에 이르고 있는 지역으로써 눈 덮힌 경관의 효과를 극대화시키고, 겨울 스포츠와 연계시킴
  - 2003년 1월로 11회를 맞이하여 강원도 전체의 눈과 관련된 축제와 연계되고 있음
- 이러한 자원을 바탕으로 2010년 동계올림픽 유치에도 도전하여 군의 잠재력을 키움

### Trend 3 농촌어메니티 자원의 상품화 시도

- 함평군차원의 나비 상품 브랜드인 ‘나르다(Nareda)’를 개발하여 경영수익을 증대시키고 있음
- 목포시의 행남자기와 서울 무한타월 등 기업체와 품목별 독점계약을 체결하여 군재정에 도움
  - 함평군이 도소매사업자 등록을 한 뒤 ‘나르다’ 브랜드를 이용한 각종 생활용품 개발하여 나비축제 기간동안 시판
  - 자생하는 나비와 꽃을 대상으로 이미지화 작업을 통해 디자인된 패션/소품, 의류, 가방/핸드백 등 다양한 상품개발
- 친환경농업으로 생산된 농산물에 대해 청정한 자연환경에서 자랐음을 인증해주는 ‘함평천지’라는 라벨 부착

- 친환경농업으로 생산한 쌀에 대해 ‘함평천지’라는 라벨을 부착하여 인증 형태로 소비자에게 전달
- 오리쌀, 자운영쌀, 나비쌀과 같은 미곡 외에 함평군에서 생산되는 특산품에 대해 시행

함평군에서 개발된 브랜드 및 인증라벨



- ☐ 나비축제를 소재로 한 소설이 발간되어 자연생태자원을 문화상품화 하는 효과 기대
- 함평군 나비축제 장소가 소설 속의 공간적 배경이 되어 나비로 구축된 함평군의 청정한 이미지를 전달하고 있음
- ☐ 평창군에서는 해발고도가 700m 이상인 지형조건을 활용하여 ‘Happy 700 평창’이라는 브랜드를 개발
- 강원도의 파스퇴르 유업이 평창군과 ‘Happy 700 평창’ 브랜드 사용과 청정우유생산에 관한 협약체결
- 평창지역 해발 700m의 청정목장에서 생산되는 원유를 이용하여 고급우유를 생산하고 평창군과 공동으로 평창지역의 농장을 관리
- 파스퇴르 유업은 1년 동안 무료로 ‘Happy 700 평창’ 브랜드를 사용하되 2004년부터는 순익의 1%를 브랜드 사용료로 평창군에 지불

청정한 자연환경 속에서 생산된 우유

- 동계올림픽 개최지 선정과정을 통하여 청정자연을 자원으로 가지고 있는 평창의 인지도가 높아지면서 ‘Happy 700 평창 프리미엄골드우유’의 매출이 신장세를 보이고 있음
- 어메니티 자원을 가지고 있는 지역에서 생산되어 유통되는 상품의 경제적 가치에 대한 가능성을 보여줌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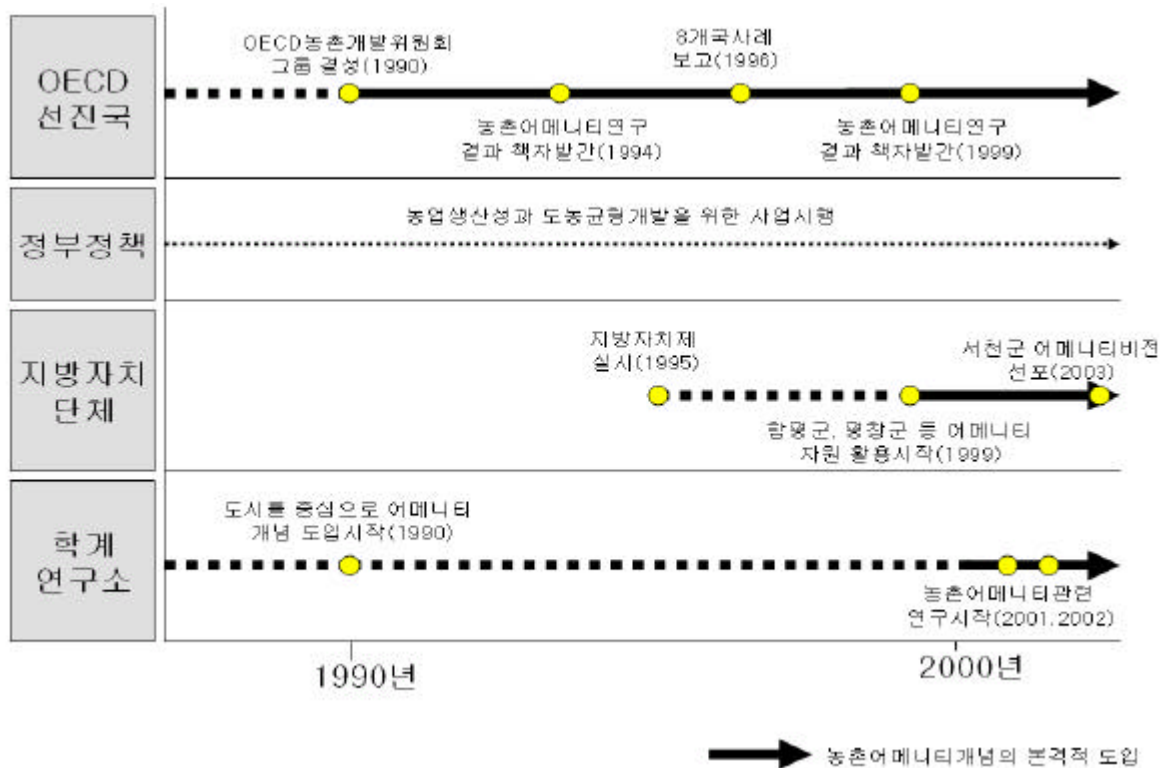
## IV. 농촌어메니티 정책의 방향

### 1. 농촌어메니티 정책으로 기존 정책의 시급한 전환이 필요

- OECD 회원국과 국내 지방자치단체의 농촌개발의 새로운 변화 움직임에 중앙정책 대응 미흡
  - OECD 주요 회원국들은 이미 농업생산정책에서 선회하여 농산물 가격지지를 축소하고 농촌어메니티 정책으로 전환
    - 서유럽과 일본, 미국을 중심으로 1990년대 이후, 농촌의 정주패턴, 생물종 다양성, 역사적 건축물 등의 자원을 농촌어메니티 자원으로 분류
    - 국내외 농업환경의 변화 속에서 농촌어메니티 자원이 결국 농촌개발정책의 대상이 되어야 한다고 인식
  - 지방자치가 실시된 이후, 농촌지역이 많이 포함된 군 단위의 자치단체들의 정책변화에 중앙정부정책이 뒤쳐지고 있는 실정임
    - 자생적인 지역경제회생정책의 일환으로 이미 많은 지방자치단체가 지역의 고유성을 살린 경쟁력 있는 사업시도

- 지방자치단체들의 인식의 전환과 자생적인 정책의 변화에 대해 농촌어메니티 개념으로 재해석하고 국가차원의 정책적 지원이 시급함

### 농촌개발의 새로운 변화 움직임



- 현행의 농업·농촌정책의 목표는 농업생산성 향상과 도시와 농촌간의 생활환경수준의 격차해소로 집약되었음

- 농업생산기반정비 사업은 주로 경지정리, 경작로, 용·배수로, 수리시설 등과 대규모 농업기반정비사업으로 간척사업 등이 해당됨
- 도·농균형개발과 관련된 사업으로는 도로정비, 마을단위의 시설정비, 마을종합개발사업, 광역(면)단위종합개발 등이 있음
  - 마을종합개발사업으로는 문화마을조성사업, 주거환경개선사업 등이 있음
  - 광역(면)단위종합개발사업으로는 정주권개발사업, 오지개발사업 등이 있음

- 농업소득 증진과 농촌공간정비로 분리하여 지원하던 것을 농촌어메니티라는 하나의 개념으로 통합
  - 농업생산 자체가 농촌어메니티 자원으로써 관리되고 농촌공간정비와 연계하여 상품성을 높여나가야 함
  - 공간단위의 정비사업에서 경제성 추구를 전략적으로 도입한 정책사업의 개발
  - 기존의 농촌정책은 환경정비에는 성과가 있었으나, 지역성을 살린 새로운 시장창출을 통한 경쟁력향상에는 미흡하였음
  - 특히 마을종합개발사업과 광역(면)단위종합개발사업은 지역경쟁력을 키울 수 있는 농촌어메니티 정책으로 전환

## 2. 토목사업 위주의 하드웨어 개발에서 탈피

- 농업생산력 향상을 위한 획일적인 농업기반정비사업은 국제농업질서의 재편에 따라 중요성 감소
  - WTO 농업협상 등 농산물 교역을 공산품 수준으로 자유화하는 방향으로 전개되고 있으므로 농업생산정책의 변화필요
  - 특히 농업기반정비사업은 농업생산공간으로써 농지 고유의 특성을 파괴하는 경지정리사업과 같은 획일적인 사업위주
  - 개간이나 간척사업과 같은 대규모 농업기반정비사업의 경우에는 심각한 환경파괴가 문제가 되고 있음
- 마을단위의 시설정비사업이나 마을종합개발사업의 경우 주로 보조금사업으로써 도로정비와 같은 토목사업위주로 보조금 사용

- 무분별한 도로개설, 획일적인 주택개량 등이 농촌경관과 지역성을 파괴하는 원인이 되고 있음
- ☐ 농촌어메니티 자원의 보전과 활용을 위해서는 무분별한 토목사업위주의 개발은 지양되어야함

- 종래의 개발지향시대에는 도시와 같은 생활환경을 갖추어주기 위한 사업 위주로 시행되어 왔음
  - 기존 정책의 관점에서 볼 때에는 일부 농촌지역은 도·농 격차가 큰 지역으로 평가되어 차별성 없는 정책수립과 집행이 이루어짐
    - 농촌 고유성 상실은 물론 이미 도시와의 차별성을 잃어버리게 된 농촌 지역이 많이 발생
  - 농촌어메니티 정책의 관점에서 낙후지역을 보면 개발에서 소외되었기 때문에 자원이 풍부한 잠재력이 있는 지역으로 재평가될 수 있음
    - 청정한 이미지와 농촌의 원풍경을 보전하고 있는 지역일수록 농촌어메니티 자원이 풍부함
- 농촌지역과 낙후지역에 대한 재평가는 경제성 추구에 대한 기존의 개발 방식에 대한 인식의 전환을 의미함
- 농촌어메니티 자원의 보전이 곧 경제성 추구의 기초가 된다는 것을 새롭게 인식
    - 대규모 토목사업과 도시지향의 개발방식을 지양해야하는 당위성 대두
- 농촌정책의 기조를 결정하는 지표들을 농촌어메니티 측면에서 새롭게 개발하여 정책 수립의 기초자료로 삼을 필요가 있음
- 기존의 지표는 도·농간의 격차를 보여주기 위한 부정적 지표로써 인구, 수세식 화장실율, 도로포장율, 상·하수도 보급율 등을 사용
  - 농촌어메니티 정책의 지표는 도시지역에 비해 경쟁력 있는 요소를 보여주는 긍정적 지표로 개발할 필요가 있음
    - 오염되지 않은 환경, 낮은 인구밀도 수준, 풍부한 녹지면적, 문화적 다양성 등을 지표로 개발하여 객관적인 정책결정 유도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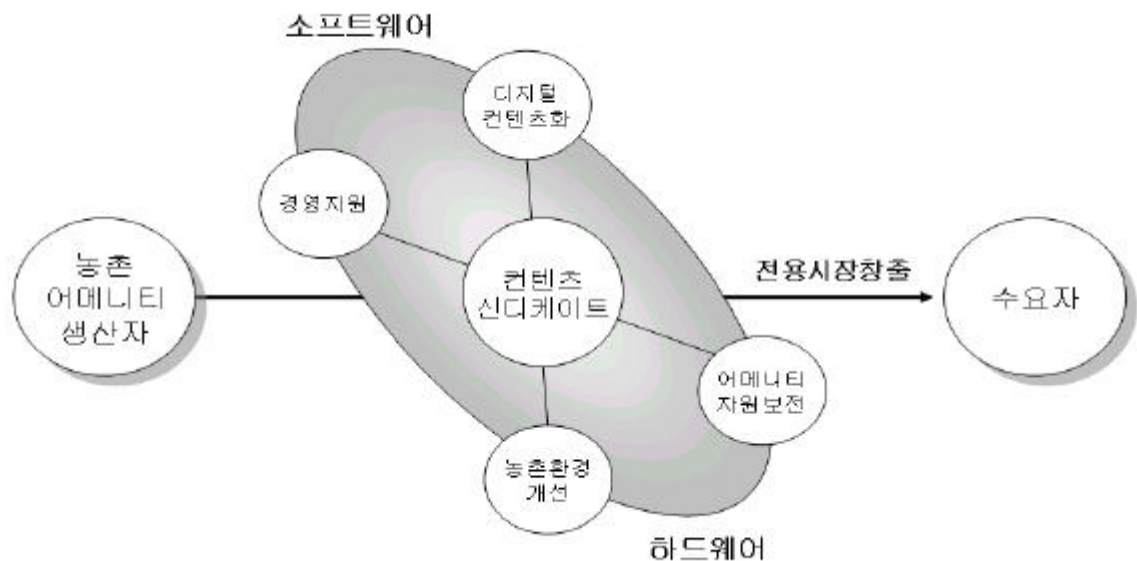
#### 4. 새로운 시장창출을 위한 정책지원수단의 다변화

- 농촌어메니티 정책 시행 초기단계에서는 새로운 시장을 조성하기 위하여 중앙정부가 콘텐츠 신디케이트(Contents Syndicate) 역할을 수행할 필요성이 있음
- 각 지역의 농촌어메니티 생산자와 밀착된 콘텐츠를 수집하고, 더 많은 수요자에게 보급하는 효과를 극대화시킬 수 있도록 중개자로서 콘텐츠 신디케이트 모델 적용
- 여기에서 콘텐츠는 On-Line상의 디지털 콘텐츠와 Off-Line상의 상품을 동시에 의미
- 콘텐츠 신디케이트 모델은 경영지원이나 디지털 콘텐츠작업과 같은 소프트웨어와 농촌어메니티 자원의 보전과 농촌환경정비와 같은 하드웨어를 통합지원가능
- 광범위한 수요자들의 욕구와 주문을 반영하여 필요한 콘텐츠만을 찾아서 제공할 수 있도록 수요자와 공급자의 중간의 역할을 수행
- 농촌어메니티 자원의 공공적 성격을 감안할 때, 이러한 중간자의 역할을 공공기관에서 담당하는 것이 적합
- 농업과 농촌의 통합된 콘텐츠 마켓플레이스 형성을 통하여 농촌어메니티 전용시장을 창출하고 점차 시장의 대형화를 꾀함
- 이미 구축된 농산물통합쇼핑(<http://www.a-peace.com/>), 농촌전통테마마을([www.go2vil.org](http://www.go2vil.org)), 농촌관광포털(<http://www.greentour.or.kr/>) 등의 통합 가능성 검토

### 컨텐츠 신디케이트(Contents Syndicate)

- 신디케이트(Syndicate)란 동일 시장 내의 여러 기업이 출자하여 공동판매회사를 설립, 일원적으로 판매하는 조직을 의미
- 컨텐츠 신디케이트(Contents Syndicate)란 자체 컨텐츠 제작 능력은 적으나, 컨텐츠 시장을 형성하여 컨텐츠의 수집, 거래, 판매 등의 유통을 담당하는 중간자 역할을 의미함
- 농촌어메니티자원을 활용한 새로운 시장의 창출에는 공공적 역할이 강조된 On-Line/ Off-Line상의 컨텐츠 신디케이트 모델적용이 효과적

### 컨텐츠 신디케이트 모델의 적용



- 컨텐츠 신디케이트(Contents Syndicate)역할 수행을 위한 기초작업으로써 농촌어메니티 자원에 대한 디지털 컨텐츠 제작의 적극적 지원

- 각 지역에 산재한 농촌어메니티 자원활용의 극대화를 위하여 On-Line 상의 정보 네트워크 구축

- 농촌어메니티 생산자들이 제공하는 디지털화된 콘텐츠를 집약하고 관련 거래 및 시장정보를 농촌어메니티 허브(hub) 사이트에 집중시킴
  - 중앙의 농촌어메니티 허브 사이트는 각 도 단위의 지역포털과 연계하여 지역적 특성 반영
- 농촌어메니티 자원경영을 실현하고자 하는 농가 및 사업체의 발굴과 지원
- 농촌어메니티 자원경영과 수익모델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세우고 이를 보급
  - 농촌어메니티 자원경영이란 농촌어메니티 자원의 발굴과 보전을 통하여 형성된 어메니티 가치개념을 상품의 부가가치를 높이는 데 적극 활용하는 것임
  - 마을 또는 지역단위의 공동 및 개인사업체가 연합하는 수익모델을 확대해 나감
  - 공동마케팅을 통하여 종합적인 농촌어메니티 가치를 경제재원으로 바꾸어 나감
- 직접지불제의 탄력적인 운용을 통하여 지역특성에 맞는 농촌어메니티 또는 경관보전형 직접지불제 도입가능성 검토
- 논농사를 짓는 농민 중 일부에게 보조금을 주는 논농업직접지불제와 농약과 비료를 적게 사용하는 농가에 대한 친환경농업직접지불제가 시행되고 있음
  - 논농업직접지불제나 친환경농업직접지불제는 일정 수준에 맞는 농업활동에 대한 직불제이나 지역적 특성은 반영하지 못하고 있음
  - 각 농촌지역의 특성에 맞추어 메밀밭 조성, 계단식 논 보전 등에 대한 지방자치단체의 자율적 기준 도입 가능성을 열어줌

□ 농촌환경개선사업과 연계하여 농촌어메니티 특화사업 지원

- 농촌문화마을조성, 정주권개발, 농가주거환경개선사업 등에 농촌어메니티 개념을 도입한 사업계획을 세움
  - 자연생태자원, 경관자원, 역사문화자원 등에 대한 관리계획 포함
  - 기반시설정비 뿐 아니라 경관정비사업을 동시에 시행
- 특히 마을단위의 자체적인 농촌어메니티 특화사업계획이 있을 경우, 기존의 농촌환경개선사업의 우선 시행대상으로 삼음

전영옥(jeonyo@seri.org)

민승규(serimsk@seri.org)

## 참고문헌

- 강신겸 · 민승규(2002), “농촌관광의 가능성과 발전방향,” CEO Information 333호, 삼성경제연구소
- 경기개발연구원(1998), 『안산시 어메니티 플랜』, 안산시
- 박창석 · 전영옥 · 조영국(2002.11), “농촌어메니티에 기초한 농촌자원 중요도 평가 및 순위적 관계 분석,” 대한국토도시계획학회지 37(6)
- 심상민(2002), “컨텐츠비즈니스의 새흐름과 대응전략,” 삼성경제연구소 Issue Paper
- 심상민(2001), 『미디어는 콘텐츠다』, 서울: 김영사
- 오현석(2002), “외국의 농촌어메니티 정책 동향,” 농촌어메니티 보전 및 관광 자원화 방안 심포지움, 농업과학기술원 · 한국농촌계획학회 주최
- 윤원근(2003), “우리나라 농촌어메니티 개발정책과 과제,” 한국지역개발학회지 15(2)
- 이상문(2003.5), “21세기 농촌 신성장동력원으로서 어메니티 경제권 구상,” 농촌생활연구소 세미나 자료
- 이상문 외(2003), “주민참여계획모델에 의한 농촌어메니티 자원발굴 및 설계기술 현장적용 연구(Ⅱ),” 협성대학교 도시환경계획연구소
- 이상문 외(2002), “주민참여계획모델에 의한 농촌어메니티 자원발굴 및 설계기술 현장적용 연구(Ⅰ),” 협성대학교 도시환경계획연구소
- 이상문(2001), “주민참여에 의한 농촌어메니티 자원의 발굴과 계획,” 농어촌과 환경 11(4), 농업기반공사 농어촌연구원
- 이재준(1998), “공동주택 주거환경의 어메니티 평가와 계획적 함의에 관한 연구,” 서울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
- 전영옥(2003.5), “DDA 이후 농촌대안경제구현을 위한 어메니티 자원개발,” 농촌생활연구소 세미나 자료
- 전영옥(2002), “도시어메니티의 개선과 기업의 대응,” 삼성경제연구소 Issue Paper
- 정문선 · 이명우(2000), “우리나라 중소도시 바이오톱 공간의 조성방안,” 한국조경학회지 28(4)
- 정치영 · 김두철(2002), “산지에서의 농경지보전대책의 모색-일본 岡山縣 棚田 보전사업을 사례로,” 대한지리학회 2002년 춘계학술대회 요약집

차미숙(2002.1), “영국의 친환경적 농촌보전 관리시책(2),” 도시정보, 대한국토 도시계획학회

OECD(1999), *Cultivating Rural Amenity*, 오현석·김정섭 역(2002), 『어메니티와 지역개발』, 서울: 새물결

中村民也(2001), “일본에서의 환경과 어메니티를 고려한 농업·농촌정비,” 환경과 어메니티 그리고 농업·농촌 정비, 한국농촌경제연구원·농업기반공사 주최 국제학술대회

Managing Rural Amenity Conflicts(2001), 뉴질랜드 환경부  
(<http://www.mfe.govt.nz>)

Rodney District Plan(2000), 뉴질랜드 Rodney District Council 홈페이지  
(<http://www.rodney.govt.nz>)

<http://www.town.kumenan.okayama.jp>(일본 오카야마현 구메난정 홈페이지)

<http://www.town.ukiha.fukuoka.jp>(일본 후쿠오카현 우키하정 홈페이지)

<http://www.parcs-naturels-regionaux.tm.fr>(프랑스 지역자연공원 홈페이지)